

한기총, 91주년 3.1절 기념예배...경찰 위문

"3.1정신으로 남북통일 위해 눈물 흘릴 때"

경술국치(庚戌國恥) 1백년과 삼일 만세운동 제91주년을 맞아 기념예배가 열렸다. 한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광선 목사)는 2월 28일(주일) 오후 3시 연동교회(이성희 목사 사무)에서 제91주년 3.1절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드리고 일본정부의 중공위안부문제 사과와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 및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

을 내용으로 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윤종관 목사(공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하태초 장로(공동회장)의 기도과 홍기숙 장로(여성위원장)의 성경봉독에 이어 이광선 목사가 '느헤미야의 애국애족'(느 1:9-11)을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광선 목사는 "91년 전 대한독립만세운동을 이끈 것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고 전제하고 '눈물과 땀 그리고 목숨을 바



친 기독교인들과 애국선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여기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그때의 신앙적 애국심과 정신을 계승하여 남북한 백성들이 통일을 위해 함께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라 설교했다. 강진분 목사(공동회장)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한창영 목사(부회장)가 '국민통합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김명희 목사(사회위 부위원장)가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하여' 각각 특별기도를 인도한 후, 참석자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당한 경찰 및 전·의병들을 위해 헌금했다. 이어 김우태 목사(총무)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애국가를 제창한 후 지덕 목사(명예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쳤다.

감리사들 순수성 확보와 협의기구 구성 제안

감리교 정상화 위한 감리사 기도회 열려



감리교 정상화를 위한 전국감리사 기도회가 지난 5일 정동제일교회 본 예배당에서 열렸다. 이상보다 저조한 참여 속에 열린 이날 기도회는 기도에, 토론에, 기도회 순으로 진행됐다. 기도에에는 사회

홍사성 감리사, 설교 류지형 감리사에 이어 김순영 감리사의 축도로 마치고 이어 정상복 감리사의 진행으로 토론 회에 들어갔다.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토론회는 감리사 모임의 활성화 및 대표성

확보와 감리교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됐다.

먼저 감리사 모임의 저조한 참여의 원인을 지난 감리사대회 후 순수성 공방에 따른 부담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며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임 준비위원 구성의 다양화, 쪽집게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대토론회, 기도회 등의 방안들이 거론됐다.

감리교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 감리교 사태의 문제점을 서로간의 불신과 소통의 부재라고 진단하고 소통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현재 감리교의 공식기구인 직 무대원, 감독, 그리고 감리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서로를 불신하고 인정하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먼저 인정하고 소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 법적인 문제에 얽매지 말고 폭넓게 감리교 정상화를 위한 협력과 토론을 하자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지금 감리교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시했으며, 앞으로 총회나 재선거 등을 해도 서로 간의 화해가 없으면 감리교의 진정한 정상화가 힘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이날 제기된 의견들은 정리해서 직무대행과 감독들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모임을 준비한 전국감리사기도회 준비위원회는 "앞으로 순수성 확보와 철저한 준비로 감리사들의 자주적이고 활발한 참여를 유도해 대 표적성, 감독, 그리고 감리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3.1운동 독립운동의 의미 되새겨

(사)예장연 제91주년 3·1절 기념예배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이사장 조성훈 목사·대표회장 김인식 목사)는 지난 1일 오전 11시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제91주년 3·1절 기념예배를 드리고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겼다. 장성화 목사(상임회장)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경원수 목사(상임회장)의 기도, 노분호 목사(수석총무)의 성경봉독, 임마누엘 중창대의 찬양, 김인식

목사(대표회장)의 마 24:32-33절을 본문으로 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신상철 목사(서기)의 3·1절 선언문 낭독에 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상임회장) 장성화 목사, '국가지 도자와 경제부흥을 위하여'(지분위원) 정현식 목사,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부회장) 임요섭 목사, '예



장연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감사 민승국 목사) 특별기도 시간을 가졌다. 계속된 예배는 김광복 목사(고분)의 격려사, 양창부 목사(상임회장)의 축사로, 조성훈 목사(이사장)의 인사, 김자이 목사(회계)의 헌금기도, 박춘복 목사(사무총장)의 광고에 이종택 목사(수석상임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축사, 조성훈 목사(이사장)의 인사, 김자이 목사(회계)의 헌금기도, 박춘복 목사(사무총장)의 광고에 이종택 목사(수석상임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 극동포럼에서 강연



국내의 리더들을 초청해 현 시대를 조명해 온 (사)극동포럼이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를 강사로 4일 오전 7시 각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 19차 강연을 개최했다. 김영규 극동포럼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우리 시대 현안을 조명하고 가치관을 제시

해 왔다면서,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한 단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사인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한미 양국 관계의 역사성을 돌아보고, 21세기 한미 동맹이 발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그동안 중점 협력분야였던 범위

와 개발, 외교 분야를 넘어 이제 식량 안보, 기후변화 등 글로벌한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양국 정상 이 백 공동 비전 성명서에도 평화와 안전, 번영의 미래가 한반도와 아태지역, 전 세계에 미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를 위해 한반도가 완전히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날을 앞당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하다가, 6자회담 관련 국가들은 경제적인 지원을 포함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노신영 전 국무총리, 공로평 전 외교통상부 장관, 오명

진 장관, 권영해 전 국방장관, 김수한 한나라당 고분, 김장수 의원, 이상득 의원, 정동영 의원, 김재윤 의원, 이경재 의원, 정대철 민주당 상임위원, 최철구 의원 등 정계 인사와 이 참 장관, 김진규 검찰총장을 비롯해 투비아 이스라엘리 이스라엘 대사, 누언소트 캄보디아 참사를 포함한 각국 주한 대사 등 각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

2003년 시작된 극동포럼은 지난 7년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역대 연사로는 리포트 한미연합사령관, 김진표 경제부총리, 황장영 선생, 이범박 서울시장, 조갑제 월간조선 발행인 겸 대표이사,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이홍구 국제포럼 이사장, 김영삼 전대통령, 조갑제 대표, 한승수 국무총리 등이 있다.

개혁신학회 2010년 발표회, 심포지엄 일정 발표

학술지 학진 등재 후보지 선정

한국개혁신학회(회장 권오동 교수)는 제83차 정기학술발표회를 지난달 27일 백석대신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이근호 목사(우리교회)가 다니엘 70이라는 대한 비역사적 해석을 주제로, 최주환 교수(루터대)가 '무엇이 루터적인가? -

종교개혁신학의 전환점 Promissio'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 2월에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2010년 학술발표회 및 정기학술 심포지엄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제84차 정기학술발표회는 4월 3일에 '뉴퍼스펙티브와 개혁신학'을 주

제로 중산대학교에서, 제86차 정기학술발표회는 6월 5일에, 제87차 정기학술발표회는 9월 11일 각각 열기로 했다. 또 제29회 정기학술심포지엄은 11월 6일 '틸라케의 신학'을 주제로 광주서광교회에서, 제30회 정기학술심포지엄은 2011년 5월에 WCCO와 개혁신학을 주제로 협성대학교에서 각각 개최기로 했다.

제84차 정기학술발표회는 4월 3일 개최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한국개혁신학회의 학술지 '가' 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권오동 회장은 등재지 후보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한국개혁신학회를 사랑하는 회원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이라며 "앞으로도 개혁신학회가 한국교회와 신학계에 공헌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했다. 031295-0004, w.reformeth.com

특별기고



'주차장 추태' 역사에 기록, 정통성 확인이라고??

이원희 목사(광화문교회)

1심판결, 가변처선일뿐...

비밀 때는 신문 값지 않는 신문이나 잡지는 자연 뒤로 밀려 놓았다가 한꺼번에 들쳐보고 치우는 습 관이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말린 신문을 들추는데 기이 한 기사 '주차장 결의가 정통성 확인 판결'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눈에 띄고 이것이 무언가 읽어 보다가 그만 웃음이 또 터져와 버렸다.

① 재판이란 1심, 2심, 3심, 재심, 헌법소원 5단계 판결 재판 중에서 박근혜가 그렇게도 으스스했던 1심 판결은 대법원(8심)의 확정판결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가변처선 같은 위임판(준비제) 판결이고 정식 요건을 갖기 위하여 말 못 모금 마시고 입을 한번 껌 껌해보는 입가심 정도 판결이다. 박근혜 말마따나 입가심 1심 판결을 그렇게 함주어 정통성확인이라 기업을 토하면 그 정통은 싸구려 전종이고 불신키 짝이 없는 전종이다.

필자의 제명 손해배상 재판만 하더라도 1심 재판에서 2000만원 원금을 지연 손해금 500만원 포함하여 약 2,500만원을 필자에게 지급하라고 1심에서 2009. 6. 25에 선고해 주었다는 기를 쓰고 사다 다리를 타고 오르듯 2심 고등법원에서 또 유명한 호사를 두 사람이나 세우 교체해 가며 1원도 줄 수가 없다 주장하며 재판을 했으나 패소했고 또 박가 네의 노련한 변호사는 목이 오르고 오기가 나 대법원에 거뺄발을 더 보태 상고를 하여 약작 같이 재판을 이겨 보여주고 있으나 1심을 뒤집기는 어려워 있는가? 1심 2심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 어디까지나 가변처선 판결이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재판 시작 1심 선고해 어깨가 으스스하여 그렇게 좋아하고 주차장 추태가 무슨 정통성 재확인이라는 등의 뺨을 치는 것은 총회원들이 법법(法曹)일 것이라 는 전제 하에 뺨을 떠는 것 같이 기만이다. 이는 옳지 않다. 제 아무리 변명을 늘어놓아도 정기 성총 회를 이탈한 주차장 추태는 영원히 주차장 추태로 역사에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② 벤쿠버 동계올림픽에 스피드스케이팅 경기 판결 같이 두 장로 변호사 변론 공방 게임에 이탈자 즉 변호사가 '주차장 추태가 정통이다' 라고 9를 주장했고 우리측 변호사가 '주차장 추태는 추태이지 성총회가 될 수 없고 정통도 아니다' 라고 7을 주장 하여 이탈자 즉 변호사가 '주차장 추태는 정통이다.' 라는 주장이 2가지 더 주장했다고 알리는 것이 재판 이고 소위 선고이다. 그레 주차장 추태가 정통이다

리는 주장의 준비서면 숫자가 더 많아 1심에서 우세 하였고 치자 정발 주차장 추태가 기록한 공 교단의 정통성이 확인된 것일까? 아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천체가 변하지 않았는데 주차장 추태가 교단의 정통성이 될 수 없다.

③ 2007. 5. 22 제6차 정기총회에서 세 교단이 통합하지는 데 결의를 하였기에 교단통합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 원효형이 되었다. 사립의 양심을 들었다 보시는 하나님이 그 주인이시다.

위임이란 권리지만 위임을 할 수 있다. 교단통합이 이루어졌기에 통합교단 헌법개정을 통합추진 위원회에 위임을 했다. 교단통합이 이루어졌기에 통합교단 임원 선출권을 통합추진위원회에 위임을 했다. 21명 통합추진 위원회나 25명의 통합추진 특별 위원회는 제6차 정기총회의 권리가 그대로 보전된 당당한 피 보전권리자이다. 그렇기에 누구고 이 학교한 법리를 넘겨보거나 흔들 수 없는 正法이다. 세 교단이 통합되었기에 한국교계와 세계교계에 2007. 10. 15. 선언대회를 했고 세 교단이 통합이 이루어졌기에 1만 5천명이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통합감사 예배를 드렸다.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에 아멘! 아멘! 응답을 했다. 이 진실이 교단정통성이다. 이 진실을 두 장로 변호사를 통하여 세상 판사에게 물어보아 그 답을 정통성으로 믿으려는가?

하나님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성도와 동역자를 속이고 기만하여 통합교단을 이탈한 주차장 추태는 정통성 근저에도 갈 수 없다. 우리 교단을 이는데 아마추어 장로 변호사를 시켜 판사에게 진위를 물어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물어보려면 정통교단을 아는 프로 이원희 목사에게 물어보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단의 통합을 부러워하는 장로 변호사 두 사람 변론 공방 게임(주차장 추태가 정통이다. 주차장 추태는 어디까지나 추태이지 정통은 아니다. 1심 판사는 스피드스케이팅에서 0.006초 앞섰다. 0.006초 뒤처졌다. 판결 같이 두 장로 변호사 주장하는 가지 수가 어느 쪽이 몇 개 더 많이 주장했다는 가지 숫자 알람에 지나지 않는 1심 판결에 일희일비할 사정은 아니다. 누가 무어라 해도 정죄와 준법의 통합교단이 정통성의 확인이고 재확인이다. 하나님이 인정해주시는 정통성의 확인이다. 미 하나님의 성회 한국 총회와 팔라틴 하나님의 성회 총회가 통합교단과 교류하기로 한 합의서도 정통성의 재확인이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주차장 추태는 주차장 추태로 바람에 날려 자연 소멸되고 말 것이다. 2010년 3월 6일

예장대신 김명규 총회장 사퇴, 4월 비상총회 개최

법원으로부터 절차상 하자로 총 회장 직무정지 판결을 받은 후 혼란 을 겪고 있던 예장대신 총회는 김명 규 총회장이 전적 사퇴함으로써 집행위 를 개최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분 주히 움직이고 있다.

예장대신 집행위원회는 지난 2일 총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4월에 비상총회를 열어 사직서를 제출한 김 총회장의 사퇴를 수리하고 차기 총회 장 보선을 결의했다. 또 교단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하고 후속조치로 모든 고 소·고발의 건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했다. 비상총회의 일정은 고장공 총회 장 직무대행이 법원의 허락을 받아 진행기로 했다.

장재협, 대표회장 최병남 목사·이사장 전광표 사령관 취임



이사장에 추대돼 증성과 취임사, 구 세군 군야대의 축하연주가 있었으며 또 신인이사과 지회장에 대한 추대장 도 수여했다. 이어 안영로 목사의 격 려사, 정근모 장로와 이재시 장로의 축사, 박희소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 서를 마쳤다.

기독교장기 재건기흥회(대표회 장 최병남 목사, 이하 장재협)는 지난 5일 기독교회관에서 창립 13주년 기념식과 정기총회와 대표회장과 이사 장 취임식을 열었다. 새로임 임원 선 출로 조직을 정비한 장재협은 장기기 흥 운동과 사랑의 은행(수술비지원 센터) 등의 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활성화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감사예배, 정기총회, 13주년 축하 및 취임식 순으로 진행 되었다. 감사예배는 채영남 목사(부이사 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최병남 목사

(대표회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이 란 제목의 설교, 양재철 목사(공동회 장)의 축도로 마쳤으며 이어 민병여 목사(상임고분)의 사회로 정기총회 가 열렸다. 정기총회는 성원보고와 개회선언 에 이어 지난해 12월 정기이사회에 서 선출된 대표회장 최병남 목사와 이사장 전광표 사령관에 대한 추대, 신인이사 지회장 홍보대사 소개가 있 었으며 기타 인건과 예산 및 사업계 획은 임원회에 일임했다. 한편 13년간 장재협을 통한 장기 기흥 등비는 1,450,000여 건, 신장기 증 수술은 132명, 재건기흥 약속 수 는 1,263건이며 이중 실제 기증자는 10명이며 액수는는 31.0억원이다. 또 장재협은 연세의료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 장기와 시신기증은 물론 사랑의 은행을 통한 수술비 지원 등 의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